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1. 30.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규 식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2020. 1. 9.)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제명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등 용어정리(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

나.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 삭제(안 제11조 및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1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 서울시는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던 중,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운행요일 미준수, 위반차량 단속 한계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기 위해
- 올해 1월 9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올해 7월 9일자로 부칙 경과 조치기간인 6개월이 종료되어 승용차요일제 혜택이 실효되면서, 이와 연계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승용차요일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았던 만큼 지방세 감면 확대,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승용차마일리지에 대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혼란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본 개정안은 내실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상위법령이 제정되면서 그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혜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와 현행법 정의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 : 승용차요일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3년에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에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는 2012년(1,081천대)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함(19년 9월: 280천대)

※ 2016년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2012년 44%에서 2019년 9월 기준 11%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음

※ 참고 : 승용차마일리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 기준에 있어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